

신동엽 시의 원전비평과 코스모폴리타니즘

-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 ‘투고본’을 중심으로*

강 형 철**

1. 머리말
2.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의 원전확정
3. 투고본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에 나타난 사회적 의미
4. 새롭게 발굴된 서정과 세계성
5. 맺음말

〈국문초록〉

신동엽은 우리 시문학사에서 민족시인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서사시 「금강」을 비롯하여 「껍데기는 가라」, 「종로 5가」 등등의 작품은 그의 대표적인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그의 문학사적 의미는 민족시인의 지평을 넘어 생태학적 관점이나 도가적 관점, 아나키즘적 관점에서도 활발하게 조명되고 있다. 또한 앞으로 건립될 신동엽 문학관을 매개로 신동엽 Ebook 아카이브즈를 통해, 그리고 새롭게 발간될 신동엽 시전집을 통해 새롭게 읽히며 그 의미가 확장되어 갈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는 이러한 평가의 근원이 되고 있는 신동엽의 작품 중 그의 데뷔작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가 처음으로 발표될 때 시대적 역사적 한계에 의해 삭제되거나 왜곡되었던 점을 주목하여 삭제되지 않은 원고의

* 본 논문은 2010학년도 숭의여대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 숭의여자대학교 미디어문예창작과 부교수

복원에 초점을 둔 논문이다.

유족에 의해 디지털화작업을 하는 과정에 발굴된 이 원고는 신동엽이 조선일보에 투고할 때의 원고에 가장 가깝다는 것을 밝혔다. 더불어 같은 과정에서 발표된 단형 서정시 6편도 신동엽의 텍스트로 제출하고 그 의미를 살폈다.

본 연구를 통해 투고본으로 추정된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는 6.25 당시 민중들이 겪어낸 비극이 씩씩하게 형상화되어 있으며 그런 비극을 넘어 민족사가 지향할 지점을 가늠해볼 수 있는 소중한 텍스트임을 밝혔고, 신동엽 시의 근원적 모티프는 물론 신동엽의 시세계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세계를 살펴보는 데 중요한 전거가 될 것임을 밝혔다.

주제어 : 변형, 보편적 독해, 세계성, 원전확정, 코스모폴리타니즘.

1. 머리말

신동엽 시인의 연구에 새로운 전기가 형성되고 있다. 1969년에 타계하여 43년이 흐른 지금의 시점에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신동엽’으로 우리의 당대적 삶에 역동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도 이례적인 일¹⁾이겠으나 충청남도 부여에 신동엽 문학관이 개관을 목전에 두고 있으면서 동시에 준비되고 있는 신동엽 시전집 간행과 신동엽 문학관 홈페이지에 공개될 신동엽 Ebook 아카이브즈(이하 신동엽 E-book으로 지칭함)는 일반 독자들은 물론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자료를 접하게 되는 계기를 이룰 것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신동엽 문학관²⁾은 현재 문학관 건축은 끝이 났고 개관을 앞두고 운영

1) 백낙청, 「살아있는 신동엽」, 신동엽 20주기 추모문학강연회, 1989. 4. 7.

2) 신동엽 문학관은 충남 부여시가 문화관광부와 충남 도청의 지원을 받아 신동엽의 생가터 부근에 건립되었다. 현재 (2012년 7월) 외부의 공사는 완성되었고 내부 공사도 거의 끝난 상태이다. 2012년 하반기 혹은 2013년 4월경(신동엽 사후

의 문제나 개관식의 문제로 문학관 설립에 많은 협력을 아끼지 않은 유족들과 협의 중인 상태이다. 문학관이 신동엽 문학을 기리는 많은 사람들의 실제적인 참여를 어떻게 확장시키고 나아가 문학관이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해당 지역사회는 물론 우리사회 전체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관계자들이 열심히 궁구하고 있다.

또한 문학관 개관에 맞추어 그동안 인병선 시인이 소장해왔던 전체 자료들을 새로운 문화환경에 맞게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작업을 완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신동엽 시전집³⁾은 물론 신동엽 E-book⁴⁾도 준비 중에 있다. 신동엽 E-book은 생애와 관련된 모든 자료와 습작노트를 비롯하여 일기나 산문 등 모든 원고가 망라될 것이다.

아카이브스로 정돈하면서 편의상 ‘관’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실제의 내용으로 보면 그 내용이 다른 것이라기보다는 방대한 자료를 E-book형태로 전환하면서 구분하기 편리하도록 구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들 모든 자료에는 신동엽 시인의 사유의 자취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어떤 자료보다 그 생생한 느낌을 줄 뿐 아니라 작품의 최초 작업일은 물론 이후의 변환과정도 추적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신동엽 연구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는 이러한 총체적 연구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제고하기 위해 신동엽 유품자료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작업 과정에서 새로이 발굴된 시작품을 살펴보고자 한다. 새롭게 발굴된 작품은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 조선일보 투고 추정본(이하 <투고본>이라 칭한다)과 단형 서정시 6편이

44주기)에는 개관될 것으로 예상된다.

- 3) 신동엽 시전집은 시집 『아사녀』와 『신동엽 전집』은 물론 유고시집 『꽃같이 그대 쓰러진』 등을 포함하고 새로이 발굴된 시편을 추가하여 간행될 예정이다.
- 4) 신동엽 Ebook 아카이브즈(이하 아카이브스로 약칭한다)는 현재 거의 완성단계에 있는데 총 다섯 항목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1. 육필원고 2. 편지 및 생애자료 3. 신문 및 잡지자료 4. 사진자료 5. 유품자료가 그것이다. 이중 육필원고 항목에는 신동엽 시인이 생전에 쓴 시 16권, 산문 2권, 평론 3권, 수상록 10권, 시극 7권, 오페레타 3권, 일기 9권, 기타 3권, 도합 5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시험페이지가 가동 중인 상태이며 개관과 함께 일반인에게 공개될 것이다.)

다. 이들 작품은 그동안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를 둘러싼 많은 논의를 종결시킬 수 있는 귀중한 성과로 판단되며 단형 서정시는 신동엽의 젊은 시절의 사유 체계를 엿볼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신동엽 문학은 대부분 ‘민족적 토착적인 성격’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는 분단현실을 극복해야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분단현실 및 억압체제로부터의 해방을 소원하는 사회적 염원의 차원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신동엽이 추구하는 궁극의 세계를 평화의 완충지대로서 ‘중립지대’로 상징하고 그 완충지대는 분단현실을 알레고리하는 공간으로 이해되었으며, 그 자리에 실현될 공동체는 참된 민주사회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또한 극단적인 대척적 지점에 킬링필드로 불렸던 캄보디아와 유비되기도 하였다⁶⁾.

본고는 이러한 복합적인 착종으로부터 벗어나 신동엽의 시를 일국의 고립적인 차원을 넘어 생명공동체를 추구하는 세계문학의 보편성 층위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신동엽 시의 근원정신을 복원하는데 그 출발점이라할 수 있는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를 중심으로 원전비평을 수행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가 6.25 당시 민중들이 겪어낸 비극을 뽀진하게 형상화한 텍스트임을 밝히는 동시에 그 비극을 인류보편적 지평으로 전환하여 그의 시세계가 세계인과 삶의 연관을 맺을 수 있는 고리로 작동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5) 김윤태, 「4·19혁명과 민족현실의 발견」, 『민족문학사 강좌』 하, 창작과비평사, 1995, 241쪽.

6) 유중호, 「뒤돌아보는 예언자-다시 읽는 신동엽」, 신동엽 30주기 기념 문학제 발제문.

2.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의 원전확정⁷⁾

신동엽의 데뷔작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는 현재까지 세편의 텍스트가 존재해왔다. 조선일보 발표본(이하 <조선일보본>이라 칭한다)이 그 하나요 시집 아사녀 판본(이하 <아사녀본>이라 칭함)이 그 둘이요 필자가 조선일보 투고 전의 노트를 중심으로 추정한 초고본(이하 <초고본>이라 칭한다)이 그것이다. 이들 각 판본은 나름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단일한 텍스트로 확정하기에는 문제가 있어보였다. 그동안의 논란의 경위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선일보 1959년 1월 3일자에 발표된 작품에 대한 문제를 보자.

신동엽은 1959년에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를 투고하여 문단에 데뷔한다. 당선작 없는 입선으로 발표된 작품은 그 자체로도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지만 발표된 작품이 신문사 임의로 수정되어 발표되었다는 점이 신동엽의 발언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었다. 당선소식을 부인에게 전하면서 신동엽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1월 3일자엔 장시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가 전제돼 있으오. 정⁸⁾애겐 낫익은 구절들이 많이 발견될 것이오. 그런데 펍 섭섭한 게 하나 있소. 내가 보낸 시의 그 모습이 아니구료. 내가 가장 생명을 기울여 엮은 절정을 이루는 시구들이 근 40행이나 삭제돼 있구료. 그리고 내가 정성을 들여 개성을 표현한 낱말 하나하나가 평범한 말로 교환이 돼 있고. 그러나 이것도 그들의 뜻을 나만은 이해될 것 같기에 오히려 감사하고 있으오)(밀줄 필자)

7) 현대시 연구에서 원전확정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들은 대부분 시집 초간본이나 전집류에 실린 작품들을 그대로 인용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서 분연법이나 어휘 및 어구에서 잘못된 예를 찾아볼 수가 있다. 더욱이 후에 간행된 전집이나 사화집 및 기타 수록된 작품들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는 작가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출판사의 편집 과정에서 생긴 오류들이 많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무런 해명도 없이 이 오류들을 그대로 인용하여 논의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다.(김학동, 『원전확정과 작가론의 반성』, 새문사, 2006, 21-22쪽.

8) 신동엽 시인이 부인 인병선씨를 부르는 애칭이다.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투고된 작품이 40여행이 삭제 되었고 전제된 시어도 시인의 사전 동의 없이 수정되어 발표되었다는 사실이다. 가장 생명을 기울여 엮은 절정의 시구 40행은 무엇이며 교체된 시어들은 무엇이었을까? 이러한 문제는 시인 자신이 이 작품 (<조선일보본>)을 포함한 작품을 시집으로 간행하면서 해소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는 시집 후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 3부의 장시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는 1959년도 1월 3일자 조선일보에 신춘현상문예작품이라는 감목으로 발표되었던 작품이다. 당시 이 시는 심사위원들 사이에 그리고 신문사측과의 사이에 이르는바 어려운 문제가 개재되어 있었다는 이야기로, 지상에 나타날 때 군데 군데 二十數行이 削除되어 있었다. 여기 그것을 補完했다.¹⁰⁾(밑줄 필자)

—『아사녀』 후기

시인 본인이 삭제된 이십 수행을 보완했다고 했으니 큰 문제는 해소된 것으로 당연시되었다. 그러나 조선일보본과 아사녀본을 실제로 비교 검토한 결과 아사녀 시집후기의 내용과는 달리 작품은 보완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시어는 오히려 후퇴한 상황이었다.¹¹⁾ 그런데 신동엽이 신문사에 투고할 당시의 시를 부인 인병선은 본 바가 없다. ‘경에겐 낯익은 구절들이 많이 발견될 것이오’라는 말에서 보듯 인병선은 투고 이전에 신동엽의 시를 여러 번 본 바는 있지만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 투고당시의 원고는 실제로 본 바가 없었던 것이다. 시인의 섬세한 마음이 이 작품을 포함하여 시집 『아사녀』가 출판됨으로써 해소된 것으로 보였지만 시집 『아사녀』본은 조선일보에 발표당시의 작품보다 오히려 더 모호한 상

9) 신동엽, 송기원 편, 『젊은 시인의 사랑』, 실천문화사, 1988, 148쪽.

10) 신동엽, 『아사녀』, 문학사, 1963(편지에서는 40여행이 『아사녀』 시집에서는 20수행으로 바뀌어 있다.)

11) 강형철, 「신동엽 시 연구」, 숭실대 박사학위논문, 1998.

태로 있었다. 또한 신동엽 시인의 말 ‘40여행이 삭제되어 있었다’는 말에 비추어보면 분명 복원된 시행이 40여행 이상은 되어야만 할 것인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시인 자신의 말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과 텍스트의 변형(transformation)이 발생한 것이다. 여기서 텍스트의 변화가 왜, 어떻게 일어나며 통제 되었는가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이 시를 만든 신동엽과 이 시를 읽는 독자와 그 당대의 문학적 풍경과 분위기를 생각한다면, 그 변형의 과정은 새로운 사회적 의미를 생산하게 된다. 문학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이며, 공동체 내에서 지식과 권력의 유통을 중재하고 또 통제하는 기제나 제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¹²⁾

4.19후 급진전한 민족통일운동은 5.16군사정변으로 일체 불법화되었다...(중략)...이후 모든 정당 사회단체를 해산하고 (5.22) 중앙정보부 설치에 관한 법률(6.10) 반공법(9.4)등을 계속 발표하며 4.19후 민족통일운동을 주도했던 민자통을 비롯한 혁신세력 및 학생들을 체포하여 혁명재판에 회부함으로써 평화통일론 일체를 탄압했다...(중략)...박정희 정권은 민정이양 후의 첫 대통령 선거(1963)에서 여단 민주공화당의 통일정책으로서 “유엔 감시하의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남북한 총선거안을 제시하면서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승공태세 완비를 강조했다.”¹³⁾

신동엽이 시집 『아사녀』를 상재할 1963년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반공법이 제정 공포되고 정치 경제문화 모든 분야에서 분단의식이 더욱 공고화되어가고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남북분단의 의미를 새롭게 묻는 불씨를 내장한 신동엽의 시는 그대로 삭제되어 잠복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2) Robert Hodge, *Literature as Discourse*, Cambridge: Polity Press, 1990, p.15.

13) 강만길, 『고쳐쓴 한국 현대사』, 창비, 1994, 356-357쪽.

이러한 과정에서 시의 원형 복원은 최초 인병선 여사가 보관 중이던 신동엽 시인의 유품에서 발견된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 <초고본> 노트를 통해 이루어졌다. <초고본>은 46배판 노트의 한 면에 씌어져 있었는데 시에 침삭 가필이 이루어진 것은 그대로 반영하면 되었으나 다른 면에도 침삭 가필된 구절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제였다.

이러한 정황에서 금번 신동엽 관련자료의 디지털작업을 하면서 신동엽이 조선일보에 투고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 원고를 발굴하였다.

이 원고를 <투고본>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1956년 春 기초 1958년 秋 재정리'란 용어와 시 원고 앞에 붙어 있는 '反逆의 舞蹈曲 第1番' 밑으로 행을 바꾸어 '先知者 序舞曲 第1番'이라는 부제가 <초고본> 노트와 정확히 일치할 뿐만 아니라 노트에 침삭 가필된 내용이 거의 그대로 보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는 엄밀하게는 네 개의 텍스트가 존재하는 것이 된다. 첫 번째 텍스트는 조선일보에 발표 당시의 판본이 하나요. 두 번째는 『아사녀』 판본이다. 세 번째는 필자가 추정한 <초고본>이고 네 번째는 이번에 발굴된 <투고본>이 그것이다¹⁴⁾.

새로이 발굴된 <투고본>은 다음과 같다.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는 서화와 후화가 있고 총 6화로 구분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시의 편제와 같이 총 여덟 부분으로 나누어 이를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에 나타난 의미는 사회적 의미의 구조 안으로 조율되는 열쇠이다. 그 조율은 주체의 믿음을 강요하거나 부인하는 방식 속에서 이루어진다¹⁵⁾. 발굴은 항상 다른 것들의 특성에 대한 공격이다. 읽고

14) 이들 판본의 비교는 그 자체로 의미가 클 것이다. 시인의 작품의도와 사회적 관계속에서 생기는 텍스트변형의 문제를 살펴볼 수 있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네 판본을 제시하고 이를 비교검토하면서 실행해야할 것이나 작업 자체가 방대하여 본고에서는 그중 특별한 변형이 이루어진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15) Robert Hodge, op. cit., p.10.

해석하는 것은 항상 정치적인 행위이며 그것의 사회적 의미는 기호작용적 차원에 의해 제공된다. 매장된 텍스트는 매우 매력적이지만 제한된 물자이며, 프로이트식 분석 사례의 대상들처럼 도처에 있지만 금지되어 있다¹⁶⁾. 각 판본은 다르다. 그 차이는 그동안 신동엽 시에 가해진 오해와 편견을 드러내기도 하고 새로운 시의 세계를 보여주기도 한다.

3. 투고본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에 나타난 사회적 의미

이번에 발굴된 투고본 원고는 초고본이 대학노트에 직접 쓴 원고인 것과 달리 인쇄 직전에 공타기로 친 16절지 10페이지 분량이다. 필명은 석림(石林)으로 되어 있다.

바다 언덕으로 나가고 싶어요. 밤하늘은 참 좋네요. 지금 地球는 旅行을 한다니요? (?)星雲¹⁷⁾ 좀 보세요. 그 세상 밖엔 또 딴 세상이 있을까요? 얼마나 먼 세상일까요... 기중 넓은 세상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럼 그의 바깥엔 다시 또 딴 마당이 있을까요?

—「서화」에서

서화는 네 개의 판본이 거의 동일하다. 2연의 관좌성운이 <투고본>에는 복자처리가 되어있다. <초고본>에 불분명하던 성운의 이름이 <조선일보본>과 <아사녀본>에는 ‘冠座星雲’으로 되었는데 그 의미는 불분명하다.

서화는 여성화자가 운명적으로 만났던 ‘당신’을 회상하는 내용이다.

16) *Ibid.*, pp.116-117.

17) 초고본은 ‘나狀星雲’으로 되어있고, 투고본은 ‘?星雲’으로 조선일보본이나 아사녀본은 ‘冠座星雲’으로 되어있다.

그 만남은 우주적 사건이라고 말한다. 1화는 남성화자가 등장하여 여성 화자와 운명적 사랑을 했다는 내용을 축으로 인류문명사의 변천과장을 축약하여 보여주고 있다.

간밤에 밝히워 간 가난한 목숨들의 冥福을 위하여. 지금 어데션
가 아우성치고 있을 못된 餓鬼들의 鎮魂을 위하여. 그리고는 來日
날 太陽빛 찬爛히 빛나 있을 銃殺執行場¹⁸⁾ 꽃바람 부는 郊外, 잔
디밭 언덕으로 끌려 나갈 아름다운 人類들의 눈물을 위하여.

내 洞里 불사른 사람들의 勳章을 용서하기 위하여. 코스모스 뒤
안길 보리사발 안은 채 죽어 있던 누나의 사랑을 爲하여. 監獄돌
문으러 갈 꽃상여의 길 닳이를 위하여. 아프리카 砂漠에서 日射病
으로 눈먼 植民地兵士들의 月給봉투를 위하여. 그리고는 먼 훗날
당신이 서 있을 大地를 쪼개고 솟아나올 始生代岩層 깊숙이 우리
의 大敍事詩를 새겨넣기 위하여.

—「제 2화」 전문

제 2화는 일반 문명사의 전개 와중에 발생한 전쟁의 풍경이 제시되면
서 이 전쟁의 의미를 세계사적 지평에서 되묻고 있다. 첫 연은 6.25로
추정되는 풍경이 그려지고 2연에서는 이러한 비극이 세계사적으로 자행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중 특기할만한 시어는 ‘총살집행장’
이다. <아사녀> 판본에는 사형집행장으로 되어있다. 사형집행장은 객
관적인 법집행이 이루어진다는 느낌을 주는데 반해 총살 집행장은 상황
이 급박하고 부당한 사형집행의 의미가 더욱 크게 느껴지는 시어라고
할 수 있다. 아사녀의 판본에서 이런 변화가 있다는 것이 시집의 현실의
식이 후퇴되어 있다고 말하는 근거의 하나이다.

18) 아사녀본에는 死刑執行場으로 되어있다.

또한 두 번째 연에서 ‘내 동리 불사른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하여’란 구절은 6.25당시 인민군들을 소탕하고 위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많이 행해진 주민소개책의 하나이다. 집이 불탄다는 것은 한 가족의 생존 자체가 위기에 빠지는 일이며 그 근거가 박탈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극한의 상황 속에서는 그것마저 민족 전체에 가해진 수난이라는 층위에서 감당해야 하는 일이 된다. ‘내 동리 불사른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하여’란 구절에는 우리민족 전체에 가해진 수난에 대한 참혹한 수락의 인식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은 한국의 역사 사회적 상황의 특수성 안에만 작용하는 협소한 가치가 아니라 인류 보편주의적 개방성의 측면에서 세계인으로서 보편성을 갖고 있는 특수성이라 할 수 있다. 전쟁의 참화를 극복하려는 용서와 사랑의 주제의식은 한국적 가치를 벗어나 보편성을 띤다.

...(전략)...

옛날엔 명실상부. 職業戰鬪家가 있었습니다. 이族 저族 팔려다니며 城門직이 호랑이잡이 鬪人끼리. 이마데 뿔돋히고 양 어금니
째져나온 불쌍한 種子들이 살엿답니다.

...(중략)...

시셋 사람들 屠殺. 그건 정 시시한 짓이야요. 눈웃음도 못할 사이
怨恨도 없이. 都市 째 시들시들 살아져 버리는 짓.

싱겁기 짝이 없는 都賣굿이야요. 19)

...(중략)...

(벗이여 말하라

어데를 가면 나의 노래 自由스러운 짓을 달고 푸른 하늘 九天世
界를 훨훨 날아올 수 있을 것인가. 벗이여 말하라 어데를 가면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은 바람 잔 구름 밑 언덕 위 들노래처럼
사라져간 이름 이름이여.)20)

19) 흔히 소나 돼지를 허가 없이 잡을 때 도살이란 어휘를 쓰는데 6.25당시의 상황은 사람들이 그런 동물 취급 당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聖子 宗主의 이름으로.
國家와 人類. 自由와 平和의 이름으로, 모든 洗練된 美德의 이
름으로 強制와 殺人에 가담하고 있는. 二十億 점잖은 病身들이여.

...(중략)...

하면 오늘밤은 어떻게 할테란가.
槍을 쏜 雪人이여 貨車 같은 뱃장이여.(칼을 든 指導者여 地獄
의 魁首여 侵略이 아니면 逃亡兵 收容所가)

...(중략)...

**고만한 눈알이여 창고같은 뱃장이여
侵略이 아니면 凶器 공장굴뚝이
괴수들의 文明市
엔 허리조른 예산이 되고²¹⁾

...(중략)...

오늘에 미친 사람 내일로 바람장케
내일로 죽은 사람 모레에 還生 항게
하여 怨讐로 죽은사람 怨讐로 더불어 (復讐케 하며 바퀴엔 바퀴
로 불엔 불로 칼엔 칼로 수레바퀴로 죽은 사람 수레바퀴로 짓니까
려 復讐케 하라)

...(하략)...

—「제 3화」에서

-
- 20) 시의 화자가 지닌 마음의 상태를 직접 드러내 보이고 있는데 초고본에는 X표를 쳐 삭제할 듯을 표했다. 이 구절이 들어가 이 시를 형식적으로 더 완성된 형태가 되는지 아닌지는 더 엄밀하게 검토해야하지만 이 시의 근원모티프를 구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구절이다.
- 21) 당시의 전쟁의 실패를 드러내고 있는 구절인데 침략이란 어휘는 시의 화자가 위치한 내면, 혹은 정신적 저층을 보여준다.

제 3화는 <조선일보본>이나 <아사녀본>과 상당히 다르다. 특히 송두리째 빠져버린 대목의 복원이 그것이다. <초고본>에도 처음에 써어졌다가 신동엽 시인이 지운 흔적이 드러나고 있는데 <투고본>에는 그것이 복원되어 있다. <초고본>, <투고본>에만 있는 부분에 밑줄을 쳤다 (이하 동일).

‘벗이여 말하라/ 어데를 가면 나의 노래 自由스러운 깃을 달고 푸른 하늘 九天世界를 훨훨 날아올을 수 있을 것인가. 벗이여 말하라 어데를 가면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은 바람 잔 구름 밑 언덕 위 들노래처럼 사라져간 이름 이름이여’ 이 구절이 시에 직접 들어가는 것이 시의 전체적 구성에 좋은 것인지를 판단하는 일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러나 이 구절들은 적어도 시인의 의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이라고 판단된다. ‘억울하다’는 의식의 저편에는 자신의 삶이 주는 하중도 있고 민족사 전체에 가해진 억울함이 동시에 그려지고 있다. 또한 이 3화는 <초고본>과 상당히 다르다. 이것은 <초고본>의 노트 여백에 쓴 구절들을 필자가 시의 흐름을 따라 삽입해서 완성한 것인데 이 <투고본>은 신동엽이 그 구절들을 어디에 위치시킨 것인가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3화는 6.25전쟁의 실상 즉 국민들이 무차별로 죽음을 당하고 그 시신들은 아무렇게나 버려져 까마귀가 시체를 쪼아대고 눈알을 파먹는 참혹한 풍경이 드러난다. 이러한 6.25전쟁의 참혹함을 제시한 후 시인은 이러한 전쟁의 궁극적인 원인 그리고 그 대안은 무엇인지 말하고 있다.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는자/영웅이 되고 싶어하는자/ 로케트에 메달아 대기권 밖으로 내던져버리라’고 말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이 땅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한없이 착한 사람들의 진혼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聖子 宗主의 이름으로./ 國家와 人類. 自由와 平和의 이름으로, 모든 洗練된 美德의 이름으로 強制와 殺人에 가담하고 있는. 二十億 점잖은 病身들이여.’에서 호명하는 면면을 보면, 한국 민중에 국한된 비극적 상황이 아니라 인류보편의 한계상황임을 알 수 있다.

여타 판본에서 삭제된 이들 내용은 당대 사회가 자의적으로 금기시하

는 부분이다. 즉 전쟁의 참혹함을 이데올로기적 대결의지로 전이시켜 이 편 저편을 가르고 그것에 의해 동조자 적대자 등으로 사회적인 매장이 이루어질 수도 있게 된다.

우리 시문학에서 6.25전쟁의 비극을 다루고 있는 예는 많다. 그러나 신동엽의 이 시는 당시의 상황을 찡찡하게 형상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비극의 의미를 당대 반공 이데올로기적 지평에서가 아니라 인류보편의 지평에 서서 그 비극의 의미를 묻고 있다는 점이 이 작품의 심대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역설적으로 이 변형된 부분은 반공이데올로기에 대적하는 논리로 쉽게 전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신동엽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변색되어 착종된다. 게다가 신동엽은 6.25 당시 부여인민위원회에서 민주청년동맹 선전부장을 한 이력이 있어 그 복합적인 비극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런 난관을 깊이 있게 천착하며 한국 전쟁의 비극성을 인류 전체의 차원에서 바라보려는 보편성을 얻으려고 했던 것인데 그 보편성이 당대의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굴절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전략)...

傳說이 아닐세. 한창 만발했는걸. 농사고 마누라고 집어던지고
뜬 봉사 아닌 밤엔 악을 쓰고 모가지가 부러지고 어깨죽지가 나가
고 불알이 터져도 이 들끓는 구데기밭으로만 뭉여오고 있네. 아뭇
놈이든 뒤엎겨 아구다툼하는 목숨들의 頂上에 젖 먼저 올라가 깊고
튼튼하고 실속있는 그놈을 음! 꺾 박어놓는 주먹이 갑오야. 등가죽
으로 창자로 목통으로 꿰뚫린 그놈을 달고 다니게 된 그 밑 臣下層
은 그날부터 산이지. 자고로 흙통이 백히고 울타리가 마련되면 높이
솟은 中央宮城의 壁 마다에는 무수한 나비떼가 늘어 붙어. 피도 빨
고 비바람도 막아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하는 법이니까.(밀줄 필자)

...(중략)...

우리하고 글썄 무슨 相關이 있단 말ियो

왜 자꾸 와 귀찮게 찹찹이나 말이요
 내 멀쩡한 四肢로 땅을 일궈서
 강냉이 고구마 조를 추수하고
 옆 마을 海蔘장 점복과 바뀌오구,
 시집 보내구 장가보내구 잘 사는데,
 글세 뭘 어떡거겠단 말이랑요.
 …(하락)…

—「제 4화」에서

4화는 그러한 전쟁의 참화를 이 당에 사는 일반 민중들의 입장에서 차별히 재조명한다. 또한 그 조명을 통해 이 전쟁의 궁극적인 의미를 세우고 있다. 그런데 이 텍스트는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삭제되어 있었다. 이 구절들은 6.25가 났을 때 자발적으로 산사람이 되었던 정황을 연상시키는 측면이 있으나 실제로는 현대문명사회의 실체를 풍자적으로 그리고 있다. 돈이 되는 일이면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고 경쟁의 사다리를 향해 아귀다툼을 하지만 늘 승자는 하나. 승자는 그것을 제도화하고 밑에 있는 자들에게 군림하며 겉으론 계약서나 법률로 억압 착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처럼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는 6.25전쟁의 실상을 근원적인 모티프로 하고 그 비극을 음미하고 재해석하는 가운데 현대문명 전체에 대한 비판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농사고 마누라고 집어던지고 산으로 오를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무더기로 죽고 그 시체는 산을 이룬다. 등가죽으로 창자로 목통으로 꿰뚫린 시신들을 깔아 이루어진 그 산을 바탕으로 중앙궁성이 서고 피도 빨고 비바람도 막아주고 심지어 노래도 불러 찬양까지 받는 것이다.

이는 전쟁 자체의 비극을 통절하게 형상화하면서 그 전쟁의 근원적 동력이 자본주의의 무한경쟁 혹은 무한착취적 속성이라는 것을 날카롭게 묘파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한 비극을 체험한 사람들은 차라리 원시 공동체의 무정부주의적 본향을 꿈꾸게 된다. ‘아 글썄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들은 항변한다. 아무런 죄도 없이 수탈당하고 죽는 운명을 그들은 거부한다. 백성들은 그들이(제국주의) 오지 않았다면 멀쩡한 사지로 땅을 일구어서 강냉이 고구마를 캐서 식량을 하고 옆마을 ‘海蔘장’(블라디보스톡의 한자식 표기)에 가서 물건도 교환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인데 그들에 의해 모든 행복은 무너져 내린 것이다. 물론 이런 우화형 이야기는 상징으로 읽힐 일이다.

근대의 문명은 교환함으로써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을 거부할 수는 없다. 다만 그러한 교섭은 일정한 금도를 지킬 수 있을 때만이 생산적일 수 있다. 이처럼 한국전쟁이 훼손한 삶의 양태는 한반도에 국한된 삶뿐만 아니라 한국 민중이 구가했을 세계인으로서의 면모 또한 삭제하였다. 이 부분의 변형이 주는 사회적 의미는 차마 발설할 수 없는 트라우마의 매장인데 정작 신동엽의 보편적 가치를 삭제하고 말았다 제 5화에서 삭제된 내용은 그것을 잘 정리하고 있다.

**組織이며 體系며 념마며

죽가래 밀어 바다로 몰아넣라

하여 하늘을 흐르는 날새처럼

한세상 한바람 한햇빛 속에

萬가지와 萬 (?)노래를 한가지로 흐르게 하과네라(밀줄 필자)

—「제 5화」에서

5화는 이러한 비극을 전면적으로 뒤엎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 것을 주창하는 내용이다. 당대 사회가 불온시 한 것은 조직이며 체계들을 가래로 밀어 버리고 하늘을 나는 날새처럼 한 세상 한 바람 속에 새로이 구축하려는 움직임일 것이다. 그러나 신동엽은 ‘萬가지와 萬 (?)노래를 한가지로 흐르게’ 하려는 융합과 소통의 의지를 제안하고 있다. 앞부분을 의미로

받는다면 신동엽은 전형적인 혁명가이다. 그러나 뒷부분을 이 시의 궁극적 의미로 이해한다면 신동엽은 탈경제적 평화주의자라 할 수 있다. 그만큼 차이와 변형의 결과는 극과 극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지점에서 신동엽의 시는 새롭게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래도 이 子息이 돌았나보. 神經줄이 베껴져 헛놀거나 못 먹을 것 먹었거나. 짜장 黃河期만 못한 걸……

이대로 두었다간 地球고 婚事고 남아날 게 없겠소 도끼로 빠개고 칼로 헤쳐서 좀 다듬어보야지 안듣거든 불살라버리지 씨가 나쁜 거야 별수 있나 아버님께 간청해서 새 種子 얻어 또 키워보야지

...(중략)...

裝飾用 케이크 製造商 丁詩業家氏 景氣가 어드레?

오 그럴꺼야 쌀값도 쌀값이지만 그 映畫館 텔레비집들이 바꾸 옆에다 新裝開業을 해놔서. 그리고 그 散文業家들인가 뭔가 앞길 복판에다 전을 벌려놔오니 될게 뭐야. 그 된 소리 안된 소리 걸레처럼 싸구려를 불러 쌓는 텅마장수 말야. “항아리” 그림가게도 觀衆이란 파리뿐이라더군? 交響曲 塔은 구름 속에 솟아서 뭐 뭉어져 버릴 것 같다구. 골동품 시절은 다 갔서. 鐵絲맛 보단 살(肉)맛이 좋거든?

...(중략)...

거북 등에 가서 집 짓고 늘어 붙는 소라. 잠자는 코끼리 등에 올라 國境들을 그어놓고 다뒹쫓는 개미떼.

깊은 地獄의 아구리에 白紙한 장 깔고누운 곰의 幸福한 눈. (** 貴族의 발톱에 늘어붙어 一生 매니큐어를 칠해주고 굶질거리는 專門家) 鐵筋과 鐵조망으로 天堂을 지어놓고 문직히는 手苦. 아무래도 核分裂的 쏘야.(밀줄 필자)

—「제 6화」에서

6화는 이러한 일이 현재의 전체 문명사를 체념적으로 수락하고 이의 점진적 개선을 통해 그 미래를 기획하는 일로서는 불가능한 일임을 밝힌다. 이를 위해 혁명적인 우화를 제시한다. 즉 한 여인 화자를 등장시켜 현대의 모든 남성을 받아내어 전인적인 인간을 수태하겠다는 결심을 밝히는 우화이다. 기왕의 인종을 새로이 경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진 인류의 창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밑줄 친 부분은 제 6화에서 삭제된 부분이다. 이중 특별한 금기어는 ‘핵분열’이다. 그것은 ‘새 종자’를 얻어 키우는 행위며, ‘철사 맛’과 같은 문명의 폐해를 지양하고 ‘살 맛’과 같은 인간애의 지향이다. 그러나 이를 폐기시킨 사회적 의미생산 행위는 ‘도끼로, 칼로, 불로’ 이루어지는 수사에 집중되어 있다. ‘쌀값’ 운운하는 현실문제에 민감한 듯하다. 이 이중적 의미 생산은 당대 사회 담론의 양가적 가치체계를 드러낸다. 이 경계에서 신동엽을 제대로 읽는 일은 쉽지 않다. 그것은 신동엽의 시를 매장시키려는 측과 일부만을 편취하는 측 모두 동일한 의미생산자라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핵’을 인간 삶의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는 신동엽의 보편화되고 세계성을 확보한 사유체계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해석이 필요하다.

그동안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를 중심으로 이가림²²⁾과 민병욱,²³⁾ 그리고 조해옥²⁴⁾의 논의가 있었다. 대개는 서사시 『금강』이나 다른 작품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부차적으로 논의해왔을 뿐이다. 이가림은 시의 전체적 의미를 ‘신이 없는 시대에 씌어질 수 있는 한 도전적인 예언자의 소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단절되고 기계화된 반편들의 폐쇄된 벽을 무너트리고 만남으로, 사물들까지도 정들고 낮익은 얼굴로 만들어주는 동정의 왕국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평가는 신동엽 시가 닿아있는 궁극적인 지향점에는 동의할 수 있겠으나 그

22) 이가림, 「만남과 동정- 신동엽 시에 있어서의 귀향의 의미」, 구중서·강형철 엮음, 『민족시인 신동엽』, 소명출판, 1999.

23) 민병욱, 「신동엽의 서사시세계와 서사정신」, 위의 책.

24) 조해옥, 「전쟁체험과 신동엽의 시」, 위의 책.

지향의 근원적 모티프는 생략된 채 제시되고 있다는 약점이 있다.

민병욱은 여성인 ‘대지’와 남성인 ‘쟁기꾼’ 사이의 성적 결합을 통하여 토피아적 현실 상황을 비판하고 유토피아적 삶행위를 지향하고 있다. 이것은 곧, 그의 표현을 빌린다면 대지의 인간정신이며, 즉 대지적 삶과 정신의 회복과 기다림이다. 그 기다림이 영웅적 인간의지와 그 감명에 의한 자연스러운 동시대성을 획득함에 의하여 가능해진다는 의미에서, 그의 시정신은 당대 상황에 대한 응전력과 교전의식을 확보할 수 있다. 민병욱의 이런 견해도 6.25라는 근원적 매개 없이 여성 남성의 보편세계에서의 신화적 해석이라 할 수 있다.

조해옥은 1950년대 전쟁 체험의 수용은 표박의식으로 표출되어 나타나며, 그가 전후 상처의 극복을 문명성 탈피와 생명의 회복을 꿈꾸는 데 시적 지향점을 두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또 전쟁체험을 보여주는 작품들은 50년대 현실의 문학적인 수용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며 신동엽의 시의식의 형성과정에 대한 이해와 후기 시세계의 변모 양상을 볼 수 있다고 평가한다. 또한 이 시기의 시적 지향은 허무와 좌절감의 시대인 50년대의 전쟁 체험을 통하여 전쟁이 문명화의 폐해가 절정에 달했을 때 노출되는 현상으로 파악되면서 문명 이전의 세계, 즉 인간성 회복에 두고 있음이 드러난다. 비교적 신동엽 시의 근원 모티프에 근접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지만 6.25라는 전쟁의 실체에 대한 언급없이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러한 평가들을 종합하면 대체적으로 이 시의 의미를 현대문명의 대안모색이라는 점에 두고 신동엽의 다른 시들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길잡이 정도의 역할로 한정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또한 6.25전쟁의 체험이 이 시에서 근원적인 모티프로 작동하고 있고 그 근원모티프를 창조적으로 극복하여 지양한 것이 현대문명 전체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는 것이다.

이 시의 문학사적 의미는 6.25전쟁 상황을 빚진하게 묘파했다는 데 있다고 본다. 또한 그 비극을 독자와 공유하고 그 공유된 의식을 바탕으로

당시의 처참한 상황을 단순한 진영논리에 국한되지 않고 실존적 인간존재 본연의 모습에서 출발하여 6.25전쟁의 진정한 의미를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도전으로 파악한 것이다.²⁵⁾ 그래서 참혹한 전쟁을 통해 막연한 문명비판으로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미래가 닳아야할 지평이 제 1,2세계를 뛰어넘는 3세계의 지평에 있다는 점을 보여준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번에 발굴된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 <투고본>은 신동엽의 여타 시들과 비교해본다 하더라도 신동엽 시의 정점에 있는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지평에서 이 작품에 대한 더 깊은 논의 속에서 근대의 극복이라는 화두에 닿을 수 있을 것이며 그 속에서 신동엽에게 주어진 민족시인이란 이름이 그야말로 내실을 갖춘 평가라는 사실도 밝혀지리라 본다. 분명한 것은 남쪽도 아니고 북쪽도 아닌 그 두 세계를 지양하며 뛰어 넘는 어떤 세계가 신동엽이 간절하게 희원하고 도달하기 위해 생애를 다한 그의 지향점일 것이다.

4. 새롭게 발굴된 서정과 세계성

유품의 디지털 작업과장에서 새로이 6편의 시가 발굴되었다. 「혁명아」(48.1.9), 「이 땅의 이 날」(48.3.1), 「追想」(48.4.25), 「脫皮의 江畔에서」(50.1) 「F부인의 證言」(56.2.20), 「바른 쪽 가슴에 광목 조각을」(발표연대 미상) 여섯 편의 작품이다. 이 작품들 중 네 편은 신동엽이 20대 전후에 쓴 작품이다. 다른 두 편 중 한 편은 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아 한일협정 이후의 어떤 시점에 쓴 작품이나 정확한 집필연도는 알 수 없다. 작품 전문은 새로 발간될 전집에 게재될 예정이며 본고에서는 새롭게 발굴된 신동엽의 서정에 초점을 맞추어 발췌 언급하고자 한다.

25) 필자는 학위논문 「신동엽 시 연구」(숭실대 박사학위 청구논문)에서 야스퍼스의 비극론을 중심으로 이를 해명해본 바 있다.

모든 無知와 疑心은
너를 보고야 봄이 꼭 오리라는
必然과 眞理를 깨달았다

—「혁명야- 눈 속에서 꺾어온 밤나무 가지의 싹」에서

自由 그것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아우성친
피와 땀으로 아로사긴 人民 抗爭의 날

그 怨讐 물러간 날이다
자유와 평화가 微笑하는 마을에서
이 땅은 굳게 지켜야할 이날 이것만

—「이 땅의 이 날」에서

이 世界の 모든 事象은 한 번 이루어진 以上 必然的으로 破壞
되고야 말고 있다

사람은 이 가운데 구름같이 旅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가 그들의 길에 必然的으로 ‘죽엄’이라는

運命에 사로잡히고 마는 것이다

사랑을 맺어 즐기려는 瞬間에 벌써 그들의 幸福에는 저녁해가
찾아오고

離別의 싸늘한 손목이 빠져지는 것이다

모든 것은 움츠리고 있다

永遠한 그리고 無限大한 黎明의 물결 속에서

—「追想」에서

괴욕질나는 都心地帶 드러운 社交場

假面舞蹈場을 벗어 나와

샷샷이 젊음을 조사 먹히우는 人肉市場을

渺然히 벗어나와(떠나와)²⁶⁾

...(중략)...

26) 팔호의 구절로 할 것인지 어떨지 궁리한 퇴고의 흔적.

마구

怒動²⁷⁾하기 비롯한 創造의 山脈을 爲하여

脫皮의 강을 건느려나

너며 나인 兄弟여.

—「脫皮의 江畔에서」에서

시 「혁명아」는 눈 속에서 꺾어온 밤나무 가지의 싹이라는 부제에서 보듯 시의 주제는 분단 이후의 상황에서도 분단을 반대하고 통일에의 열망을 담는 많은 활동가들의 심적 지향점을 쓴 시로 읽힌다. 아직 젊은 시절(당시 18세) 습작기의 시가 갖는 추상성이나 관념성이 지워지지 않았지만 ‘모든 無知와 疑心은 너를 보고야 봄이 꼭 오리라’는 구절에서 보듯 의미의 순차성을 돌파해나가는 인식의 힘과 깊이가 돋보인다. 이 사유의 핵심은 보편적 진리의 필연성에 있다. 그것은 매우 설득적이며 논리적이라 할 수 있다.

시 「이 땅의 이 날」은 3.1운동을 생각하며 쓴 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3.1운동을 ‘피와 땀으로 새긴 人民抗爭의 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러한 의미규정은 남과 북 어디서도 볼 수 없다. 3.1운동을 무저항적 평화운동으로만 인식했던 기존의 의미를 폐기하고 제국주의에 온몸으로 저항하는 제3세계 인민의 보편적 행위로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시 「追想」은 화자가 새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스스로를 단련하던 시절을 그리고 있다. ‘세계의 모든 事象은 한 번 이루어진 이상 필연적으로 파괴’되는 세계의 근원적 이치를 떠올리며 새로이 다짐을 ‘무한대의 여명’이라 말하고 있다. 역사 속 사상(事象)의 흥망을 보편적 진리로 인식하는 필연성은 한국 민족 만의 특수성이 아니다. 그러므로 청년 신동엽이 꿈꾸었을 이상세계는 인류 보편의 유토피아와 소통하고 있다 할 것이다.

시 「脫皮의 江畔에서」의 화자는 구역질나는 도심의 사교장을 벗어나

27) 勞動이란 한자를 두고 怒動이란 한자를 쓰고 있는 것이 단순 착오인지 아니면 노동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것인지 검토해볼만한 일이다.

와 자신과 주위를 성찰한다. 도시의 생활을 ‘가면무도장에서 젊음을 먹히는 인육시장의 삶’이라 규정하고 있다. 청년 신동엽이 파악한 근대의 풍경이다. 무정부주의적 사고가 짙게 드러나는 작품으로 읽힐 수 있다. 그러나 ‘집요하게 매달리는 인습과 미련’을 벗어던지고 ‘알몸’으로서의 순수성 혹은 자연성을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서 노동의 권리나 인권의 숭고함을 대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너와 나’를 ‘형제’로 인식하는 ‘사해동포주의’는 국가와 체제의 경계를 넘어 보편적 인류애가 바탕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신동엽의 대표작 「껍데기는 가라」에서 다시 등장하는 ‘알몸’의 이미지는 현실정치의 ‘허위와 가식’의 대비적 알레고리로 읽힐 수 있지만 문명을 벗어나 인간 본연의 ‘창조적 삶’을 추구하는 보편적 인간 본성의 상징으로도 읽힐 수 있다.

이상의 네 편의 작품은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다시 검토할 여지가 있지만 주목할 것은 초기 시의 시적 인식과 사유의 내용이다. ‘공동체’ 혹은 ‘민족’ 전체가 처한 상황을 자신의 운명으로 내재화하는 동시에 인류 전체의 문제로 보편화시켰다는 점이다. 청년기의 순정한 정신이 가 닿고 있는 곳은 ‘새로운 봄’이며 당연히 이 봄은 ‘눈과 어둠에 덮인 침묵과 죽음의 세계’를 넘어선 세계다. 관념적 상투성과 사고의 단순함이 심화되고 구체화된 삶의 결을 드러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침묵과 주검’을 넘어서고자하는 강렬한 열정은 신동엽 시정신의 전체를 관통하는 시적 태도로서 그동안 인류 전체가 욕망했던 소통의 지점이라 할 수 있다.²⁸⁾

시 「F부인의 증언」은 신동엽의 또 다른 대표작으로 알려진 「아니오」란 시를 떠올리게 한다. 이 시는 ‘F부인’이란 화자를 통해서 큰 고통을 통과한 화자가 오랜 체념을 통과해 달관에 이른 마음의 상태를 잘 형상화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체념은 얼핏 방관과 방조의 정조를 보인다. 그러나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을 감내한 뒤엔 그것을 오히려

28) 신동엽 시의 핵심사상을 아나키즘 맑스주의 노자의 도교주의 등등으로 구명하고 있는데 이 젊은 시절의 시들을 통해 그의 사상적 모색이 일찍부터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었음을 드러내주는 근거도 된다.

려 대범하게 긍정하고 달관에 이른다면 그것은 방임과 방조의 태도가 아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태도일 수 있다. 이 시기 신동엽이 6.25의 소용돌이를 지나 국민방위군 사건을 통과라고 국군에 입대하여 제대까지 한 상황을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쟁의 고통이 거대담론을 주지시키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부정하고 한 개인의 실존적 상황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고가 새롭게 읽고자 하는 신동엽의 서정은 이처럼 무정부주의적인 ‘방임’된 상태의 냉소적 현실 부정이 아니라 적극적 삶의 의지로 변주되는 인간 본연의 천착이라 할 수 있다.

바른 쪽 가슴에 하늘빛 광목쪼각을 달고 다닙시다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는 우리
 시위하고 싶어도 데모못하는 우리
 조용한 主權者의 意思를 나타내기 위하여

오늘부터 바른 쪽 가슴마다, 세로 2센치 가로 2센치, 잉크빛 천조각을 달고 다닙시다.

우리들의 아들 딸이 곤봉에 거꾸러지고
 우리들의 兄弟가 구둣발에 짓밟혀도
 말 한마디 못하고 서서 구경만 해야하는
 이 나라의 주인인 우리 주민들의 정당한 의사를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 오늘부터 첫눈이 올때까지
 바른 쪽 가슴마다 하늘빛 광목쪼각을
 달고 다닙시다

그러면 며칠 안가서, 서울, 대구, 광주, 부산, 모든 국민이 하늘빛

“反對”를 가슴에 달면,
과연 屈辱外交와 一黨專橫을 찬성하는 얼굴들이,
삼천리 강토에 몇사람이나 되는가
그 불쌍한 얼굴쯤 드러다봅시다.

우선 오늘부터 우리 主權者들이 죽지 않았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오른 쪽 가슴마다 잉크빛 천을 달고 다닙시다.

그러면 경찰과 싸우지 않아도
거리를 다니는 우리 국민 모두의 물결도, 그대로 살아서 소리치
는 시위가 될 겁니다.

—「바른 쪽 가슴에 광목 조각을」 전문

이 시는 원고지에 정서되어 있었고 필자는 무명시인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원고지에 쓴 시의 필체로 보아도 그렇고 신동엽 사후 발표된 「傳統情神속으로 結束하라」는 미발표 산문에서 보이는 발상법의 유사성으로 보아 신동엽 시가 확실하다고 판단된다. 이 시에는 집필일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시에 등장하는 「屈辱外交와 一黨專橫」에서 유추해볼 수 있는 데 한일협정(1964) 이후 이에 반대하고 항의하는 싸움이 있었던 시기에 쓴 것으로 판단된다.

이 시는 관념 속에서 전개되는 높은 이상 대신 실천의 낮은 자리로 이동해서 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도드라져 보인다. 또한 폭력적인 상황에 맞서 비폭력의 방법으로 일당전횡에 반대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시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하다. 신동엽은 1968년 북한 작가동맹위원장직이 남북한 문화교류를 제안해온 것에 대해 남쪽에서 북쪽의 제의가 상투적인 정치선전이라고 비판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모습을 비판하면서 「傳統情神 속으로 結束하라」²⁹⁾라는 제안을 한 바

29) 『신동엽 전집』, 398-399쪽.

있다. 미발표의 유고였지만 이 글에서 문화는 정치의 괴뢰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他與的으로 강제되어 분단된 祖國의 共同體적 운명을 서러워하는 사람’이라면 ‘피없는 언어’를 흉내낸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어 그는 ‘우리는 조국(남북한)의 역사적 주인임을 각성’하고 ‘적극적으로 조국의 운명을 연구하고 모색 실천하고 발언’해야 한다고 제의한 후에 다음과 같은 기발한 제안을 한다.

全體主義도 放任主義도 우리의 체질이 아님을 조국의 양쪽 현실이 증명하고 있다. 제주에서 아리랑을 부르기 시작하면 두 시간도 안 돼 평양 압록까지 합창이 번질 것이다. 날짜를 택해 판문점이나 임진강 완충지대에 그리운 사람들끼리 모여 아리랑을 합창해보자고 제의하는 사람이 남북을 통해 아직 없다는 것은 쓸쓸한 일이다.³⁰⁾

‘全體主義’는 북쪽에 대한 비판이고 ‘放任主義’는 남쪽에 대한 비판의 식일 것이다. 신동엽은 남과 북이 지닌 현실적인 정치체제의 관점이 아니라 두 체제의 알맹이를 이루는 민중의 입장에서 말한다. 그리고 문화적 전통 속에서 어느 때라도 하나의 공동체임을 알 수 있는 아리랑을 통해서 실질적인 통일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안하는 것이다. 분열과 대립을 넘어선 소통의 전개 방식은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민주화 움직임과 금융자본에 대한 저항 운동과 유사한 형식과 내용을 띠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발굴된 신동엽의 작품들은 6.25전쟁의 비극과 전후 한국사회의 부조리가 생생하게 드러나 있으면서도 그 비극과 부조리에 대한 인식이 어느 한 쪽에 대한 적개심이나 분노에 머물지 않고 제 3세계 민중의 지평 속에서 새로운 길을 전망하는 서정적 탐구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신동엽의 시 세계를 전후 한국 사회의 근대의 부조리나 민족 모순에 국한시켜 이해하는 지점에서 탈피하여 세계문학의 일원으로 편입시켜 새롭게 조명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30) 위의 책, 399쪽.

5. 맺음말

본고는 신동엽이 조선일보에 투고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와 새로이 발굴된 여섯 편의 시를 대상으로 제한적이지만 원전비평을 수행하는 동시에 새롭게 발굴된 신동엽 시의 서정성과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는 신동엽의 데뷔작품이지만 작품이 신문에 발표되면서 임의로 삭제되거나 변형되어 신동엽의 온전한 시정신을 살펴보는 데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를 보정 보완했던 학위논문에서 육필로 된 초고본을 중심으로 작품을 추정한 바 있지만 이번에 발굴된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 원고는 추정한 <초고본>에 비해 완성도가 높고 타자로 인쇄되어 있으면서도 일체의 가필이 없었다는 점에서 신동엽 본인에 의해 정돈된 투고 당시의 원고로 확정지을 수 있다.

또한 20대 초반에 쓴 네 편의 시와 또 다른 두 편의 시는 초기의 신동엽 시 정신을 가늠해볼 수 있는 자료임과 동시에 향후 신동엽 연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리라 본다. 이 작품들은 신동엽 문학과 개관과 함께 일반에게 공표될 신동엽 Ebook아카이브즈와 신동엽 시전집에 반영될 것이며 추후에 기획될 신동엽 산문전집과 함께 신동엽 연구의 초석이 될 것이다. 분단된 조국을 묵시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그 현실을 깨트리기 위해 몸부림치며 걸어난 신동엽의 모습은 향후 새로운 자료들과 함께 우리 시의 귀중한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새롭게 발굴된 자료는 민족주의 이념의 수호자로 제한적 평가를 받고 있는 신동엽의 문학에 ‘보편적(universal) 독해’가 필요함을 환기시키고 있다. 이를 위해 본고는 신동엽의 시에서 ‘소통적 보편성(communicative universality)³¹⁾’을 읽고자 했다. 이는 소통을 가능케 하는 보편적 요소가

31) 조희연, 「우리 안의 보편성: 지적, 학문적 주체화로의 길」, 『우리 안의 보편성』, 한울, 2006.

전세계인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내재해 있다는 전제에서 비롯한다. 이처럼 보편적 독해를 통해 신동엽의 새로운 시들을 살펴볼 때, 그동안 삭제되고 매장되었던 서정들이 드러났다. 신동엽의 시는 공감과 상상력의 탄력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특수한 쟁점들과 다른 국가의 특수한 사례들을 관통하는 보편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감의 전유 속에서 한국 전쟁의 비극과 전후 한국사회의 부조리는 ‘식민지 근대’의 착취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전지구적 유토피아를 내재하고 있다. 신동엽이 설정한 공간은 한반도의 역사 현실의 대안 공간으로만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과 전쟁과 살생으로 영일이 없는 전 세계인이 고대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신동엽의 보편성은 그의 코스모폴리탄적 세계인식에서 연유된 것이라 할 수 있기도 하고, ‘가장 민족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고전적 명제를 실감케하는 예증이라 하겠다.

발굴자료

-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투고본), 1959.
「혁명아」(1948.1.9.), 「이 땅의 이 날」(1948.3.1), 「追想」(1948.4.25), 「脫皮의 江畔에서」(1950.1), 「F부인의 證言」(1956.2.20.), 「바른 쪽 가슴에 광목조각을」(발표연대 미상)

기초자료

- 신동엽, 『아사녀』, 문학사, 1963.
_____, 『신동엽 전집』, 창작과비평사, 1975.
_____,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창작과비평사, 1979.
_____, 『금강』, 창작과비평사, 1989.

논문 및 단행본

- 강만길, 『고쳐쓴 한국 현대사』, 창비, 1994.
강형철, 「신동엽 시 연구」, 숭실대 박사학위논문, 1998.
구중서·강형철 엮음, 『민족시인 신동엽』 소명출판, 1999.
김운태, 「4·19혁명과 민족현실의 발견」, 『민족문학사 강좌』 하, 창작과비평사, 1995.
김응교, 『신동엽』, 글누림, 2011.
김학동, 『원전확정과 작가론의 반성』, 새문사, 2006.
백낙청, 「살아있는 신동엽」, 신동엽 20주기 추모문학강연회, 1989.4.7.
신동엽, 송기원 엮음, 「젊은 시인의 사랑」, 실천문학사, 1988.
유종호, 「뒤돌아보는 예언자」, 『서정적 진실을 찾아서』, 민음사, 2002.
조희연, 「우리 안의 보편성: 지적, 학문적 주체화로의 길」, 『우리 안의 보편성』, 한울, 2006.
Robert Hodge, *Literature as Discourse*, Combridge: Polity Press, 1990.

〈ABSTRACT〉

Dong-Yeop Shin's Poetry of Textual Criticism and Cosmopolitanism

Hyung Chul Kang
(Soongeui Women's College)

Dong-Yeop Shin's is identified as a national poet in the history of Korean poetry. The epic, "Keum-Kang River" "Fakes, go away", "The 5th street of Jong-Ro" are his representative accomplishments. The literary and historical significance of his works has been illuminated on some points of eco-criticism, Taoism and anarchism in addition to the sense of national literature. The meaning of his works may be extended with the medium of the establishment of his literary museum, archives of his E-book, and the complete works of his which will be newly published.

This paper is based on the recovery of the original text of "The earth of the story-telling plowman" which was one of his main poems and partly deleted or distorted by some historical limitations when it was firstly published.

This paper illuminates that the manuscript discovered by his family during the processing of disitalization is the most close one with the manuscript which was firstly submitted to *Cho-Sun-Il-Bo*. In addition, this paper analyzed the short Six lyric pdems which were published during the same process.

This paper clarifies that the submitted version of "The earth of the story-telling plowman" is the significant text in which the tragedy of Korean people during the Korean war is represented so realistically and vividly and which shows the national vision over such a tragedy and will be a very important

reference to excavate not only the basic motif of his poems but also the ultimate world toward which his poetry is oriented.

Key words : Cosmopolitanism, globality, original text, translation, universal comprehension

논문접수일 : 7.15. / 심사기간 : 7.16~8.5. / 게재확정일 : 8.15.
--

